

아시아공동체론과 세계시민 교육을 통한 대학생들의 의식변화 연구*

정기영 · 히라나카 유카리 · 조희주**

(부산외국어대학교)

1. 서론
2.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 2.1. 선행연구
 - 2.2. 연구방법
3. 강의 개요 및 구성
4. 아시아공동체론과 세계시민 교육 강의 설문조사 및 분석
 - 4.1. 설문조사 대상자 및 조사방법
 - 4.2. 설문조사 대상자 기초 질문 및 분석
 - 4.3. 아시아공동체와 세계시민 교육에 관한 의식변화 분석
 - 4.4. 기타 최종 감상에 대한 분석
5. 결론 및 금후의 과제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가 EU 공동체와 같은 미래사회 구축과 하나의 세계를 상상하고 모색하기 위해 개설된 대학의 교양강좌 ‘아시아공동체론’에서 ‘아시아공동체’와 ‘세계시민교육’을 키워드로 매주 각 분야별 강연자를 초청하여 옴니버

* 이 논문은 2022학년도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공동 제1저자 : 정기영, 히라나카 유카리, 조희주

스식 강의를 진행한 후 수강생들의 인식변화를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아시아지역에서 국가를 초월한 공동체 실현 가능성과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교육효과, 그리고 교육 방안을 고찰하였다.

[주제어] 아시아공동체, 세계시민교육, 다문화교육, 외국어교육

1. 서론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CED)¹⁾이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세계 평화, 인권, 문화다양성 등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책임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을 말한다. 이 교육은 2015 세계교육포럼 개최를 계기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시대의 새로운 국제 교육의제로 부상하였으며, 2030년까지 유네스코 및 UN의 교육발전 목표에도 반영되었다.

이 분야의 연구는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는 이미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국어교육에서도 구체적으로 도입되어 커리큘럼에 반영되고 있으나 한국의 외국어교육계에서는 아직 이러한 연구가 보이지 않고 언어적, 문학적, 문화적 교육의 실제적 연구에 머물러 있다. 현재 한국의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교육학의 연구 분야는 앞서 언급한 언어, 문학, 문화 교육 중심에서 융합교육²⁾으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으나 외국어교육의 최종 목표라 할 수 있는 세계시민교육의 교육과정 도입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금후 학생들의 졸업 후 진출과 요구되고 있는 능력 및 기능을 생각할 때 아시아공동체 시대에 대한 상상력과 세계시민교육은 미래 세대를 짊어지고 갈 대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 본 논문에서는 Citizenship을 세계시민으로 표현 한다

2) <https://krsna.bufs.ac.kr/> 일본어교육과 비즈니스, 호스피탈리티, 통번역, IT 등 부산외국어대학교 일본어융합학부의 융합교육사례

또한 이러한 아시아 상생을 위한 연구결과가 실제적인 교육에 반영된다면 단순한 언어, 문학, 문화 교육 차원을 넘어 사회적 성숙을 통해 정치 경제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외국어 및 다문화 교육학계에도 새로운 가능성과 패러다임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가 EU 공동체와 같은 미래사회 구축과 하나의 세계를 상상하고 모색하기 위해 개설된 대학의 교양강좌 ‘아시아공동체론’에서 ‘아시아공동체3)’와 ‘세계시민교육’을 키워드로 매주 각 분야별 강연자를 초청하여 옴니버스식 강의를 진행한 후 수강생들의 의식변화를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아시아지역에서 국가를 초월한 공동체 실현 가능성과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교육효과, 그리고 교육 방안을 타진해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2.1. 선행연구

세계시민교육은 유네스코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과 함께 기간교육 프로그램으로 상정하고 있는 중요 과제로 2012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제시한 ‘글로벌 교육 제일 이니셔티브’(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를 계승하여 유엔이 유네스코를 주관기관으로 채택한 프로그램이다.⁴⁾ 한국에서는 유네스코 스쿨과 서울에 설립된 유네스코 연구소인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센터(Asia-Pacific Center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Education: APCEIU)등에서 세계시민교육 연구 및

3) 아시아공동체에 대한 학술적 정의는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접근되고 있다. 다만 본 강좌에서의 아시아공동체는 아시아가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하나의 공동체 형성을 지향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EU공동체를 모델로 하고 있다.

4) 小林(2018) 「ユネスコの地球市民教育が追求する能力: グローバル時代における価値教育の新たな展望」p.19, 22참조

실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⁵⁾ 세계시민교육의 목적은 창의성, 혁신 및 평화, 인권,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대처와 같은 책임 있는 글로벌 시티즌십을 뒷받침하는 가치관, 태도, 행동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⁶⁾ 본고의 연구대상 강좌 ‘아시아공동체론’의 아시아공동체를 가까이 느끼고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갖추어야 할 개인의 가치관이 나 행동양식을 생각한다는 목적과도 유사하다.

‘아시아공동체론’ 강좌는 아시아공동체 창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일본의 일반사단법인 유라시아재단 from Asia⁷⁾의 조성을 받아 세계 각국에서 강좌가 개설되어 있으며, 그 성과는 鮎川(2013, 2014), 정준곤외(2015), 정기영외(2015) 등에서 보고되고 있다. 鮎川(2013, 2014)는 상기 강좌를 운영한 각국 대학 교수에게 인터뷰를 실시하여 그 교육성과를 아시아 지역에서 네트워크를 넓히고 있는 대학교수 및 대학생과 공유하고 있다. 정준곤외(2015)는 국가를 넘어 아시아지역의 교수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위 재단 지원 아래 개최된 ‘One Asia Convention Jeju 2014’에서 발표된 논문 및 당일 발표 녹취록을 편집한 컨벤션 성과를 기록으로 남겼다. 정기영외(2015)는 2013학년도에 개설된 이 강좌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강좌 시작 전과 종료 후의 아시아공동체에 대한 의식 변화, 수업 만족도를 분석하여 이 강좌가 아시아공동체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본고는 정기영외(2015)를 바탕으로 2021년도에 실시한 동일한 강좌를 연구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2013학년도 및 2021학년도의 2회 강좌를 비교한 점과 코로나로 인해 전체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면서 온라인 강좌운영의 유용성 및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5) 小林(2018)앞 논문 p.22참조

6) UNESCO 홈페이지 참조 (<https://en.unesco.org/themes/gced>)(2022년 10월 25일 열람)

It aims to instil in learners the values, attitudes and behaviours that support responsible global citizenship: creativity, innovation, and commitment to peace, human right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7) 전 일반재단법인 원아시아를 2020년에 현재 명칭으로 변경.

2.2. 연구방법

본 논문은 15주에 걸친 강좌의 시작 전에 진행된 사전 설문조사와 각 주별 설문조사, 그리고 강좌 수강 후 최종 설문조사의 분석 및 고찰로 이루어졌다.

본격적인 강의 시작 전인 1주차 사전 설문조사에서는 본 강좌 수강 이유와 기대점, 그리고 현재 아시아지역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였다. 2주차부터 14주차까지는 강의내용의 이해도와 만족도, 인상 깊은 키워드, 강의를 듣고 느낀 점을 조사하였고 마지막 주차인 15주차에는 사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강의를 듣기 전과 듣고 난 후의 아시아공동체와 세계시민교육 등에 관한 수강생들의 의식변화를 비교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3. 강의 개요 및 구성

오늘날 아시아는 서구 선진국과 어깨를 견주며 함께 경쟁하고, 아시아적 가치관과 기준을 제시하며 세계를 이끄는 글로벌 파워로 거듭나고 있다. 이제는 아시아의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을 위한 해법을 고민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아시아공동체, 이른 바 ‘원아시아’ 라고 할 수 있다. 나라마다 경제발전 수준이나 정치체제, 종교, 언어, 역사적 경험이 천차만별인 아시아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아시아 각국의 경제, 교육, 문화 혹은 시민 교류 등을 통해 공통의 가치관을 조성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강좌는 일본의 유라시아재단⁸⁾의 조성사업으로 ‘원아시아’의 개념 및 등장 배경과 시대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각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학습을 통해 아시아 각국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개설되었다. 또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를 재조명

8) 一般社団法人ユーラシア財団(일본사단법인 유라시아재단) from Asia 홈페이지.
<http://www.eurasia.or.jp/>(2022년 10월 25일 열람)

하고, 각 개인에게 어떠한 사고와 행동이 요구되고 있는지 생각하며 서로 토론하는 강의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본 강좌는 앞으로 변화하는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종합적인 지식과 사고를 함양함으로써 글로벌인재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2013년 3월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양강좌로 시작되었으며 2021년 9월 현재 아르케교양의 ‘문학/문화 영역’ 교양강좌로 개설되었다.

2021년도에는 수강생이 약 250명인 대규모강좌로 매주 각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의를 진행하였다. 본 강좌는 강의를 들은 후 이해하고 토론하는 강의임을 감안하여 시험을 치고 점수를 부여하는 평가 방법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는 매주 제출하는 과제물인 설문조사로 대체하였다. 그리고 출석과 토론참여, 감상문 제출, 양케이트 설문 제출을 종합하여 70점 이상이면 PASS하는 방식인 PASS/NON PASS 형식의 평가 방법을 적용하였다.

아시아공동체 ‘원아시아’라는 개념은 글로벌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본 강좌를 통해 ‘글로벌화’, ‘ASEAN’, ‘동아시아공동체’ 등 항상 막연하게만 들어왔던 것들이 수강생들 자신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고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는 안목을 기함과 동시에 그 속에서 개인의 가치관과 행동 양식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생각하게 하는 기회를 갖게 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학기 아시아공동체론 강좌의 주제는 세계시민교육을 중심에 두고 경색되어 있는 한일관계, 복수언어/복수문화 등 공동체와 연결되는 다양한 주제를 제시하고 그 분야에 맞는 여러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강의 후 수강생들과 토론하는 강의 방식으로 매주 월요일 3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수강생의 수가 200명을 초과하는 초대형 교양과목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강의는 할 수 없었으나 온라인 ZOOM을 이용하여 강연자와 수강생들이 직접 소통하며 강의가 이루어졌다.

금년이 유라시아재단이 지원하는 아시아공동체론 9년차 강좌이며 본 강좌는 10년차인 2022년 1학기까지 진행이 된다. 2013년 첫 강의 후 수강생의 의식변화를 중심으로 1차 조사가 실시된 바 있으며⁹⁾ 이번

2021년에 다시 한 번 2차 강의 사례를 조사하게 되었다. 1차 조사와 2차 조사의 차이점은 1차에서는 아시아공동체에 관련된 조사가 주가 되었다면 이번 2차 조사는 세계시민교육에 포커스를 두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 <표 1>은 2021년 2학기에 수강생들에게 공지한 주별 강의 일정과 강의 주제, 강사진을 포함한 아시아공동체론 강의일정표이다.

<표 1> 아시아공동체론 강의일정표

일정	강의 언어	강의테마	강사(소속기관)
제1회 8/30	한국어	아시아공동체론 오리엔테이션	정기영 (부산외국어대학 교수)
제2회 9/6	한국어	유라시아 관문으로써의 부산 의 역할과 기대	로이 알록 (부산외국어대학 교수)
제3회 9/13	한국어	지금 왜 아시아공동체론인가?	정준곤 (유라시아재단 수석 연구원)
제4회 9/20	한국어	대전환기에 한일관계는 어디 로 가야하나?	신각수 (전 주일본한국대사, 법무법인 세종교문)
제5회 9/27	한국어	간문화적 시티즌십으로써의 외국어교육	모리야마 신 (오차노미즈여자대학 교수)
제6회 10/4	한국어	글로벌 인재상과 시티즌십 교육	정기영 (부산외국어대학 교수)
제7회 10/11	한국어	탄뎀을 통한 시티즌십 교육	히라나카 유카리 (부산외국어대학 교수)
제8회 10/18	일본어	다민족 국가의 관용성에 대하여	나스 요시히코 (전 부산외국어대학 교수)
제9회 10/25	한국어	글로벌시티즌십, 도시브랜드 로 이야기한다	이진호 (동서대학 교수)
제10회 11/1	일본어	다언어 다문화 동시학습 지원 과 대학발 벤처	나가토모 카즈히코 (주)미야자키국제교육서비스,

9) 정기영 외 4명(2015), '아시아공동체론' 강의사례 연구 -부산외대 '아시아공동체론' 수강생의 의식변화를 중심으로-, 일본어교육학회 31집, pp.207~224 참조

			미야자키대학 교수)
제11회 11/8	일본어	시티즌십과 복수언어 능력	야마모토 사에리 (야마구치대학 교수)
제12회 11/15	한국어	코로나19 팬데믹후의 온/오프 라인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하이브리드 교육법을 통한 탄뎀학습에서의 글로벌인식강화	하수권 (부산외국어대학 교수)
제13회 11/22	한국어	시티즌십과 글로벌 공무원의 길	박우근 (전 수영구부구청장, 부경대학 교수)
제14회 11/29	한국어	아시아공동체를 향해서	정기영 (부산외국어대학 교수)

4. 아시아공동체론과 세계시민 교육 강의 설문조사 및 분석

‘아시아공동체론’ 강의 후 의식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본 강좌 수강생 246명이며 조사 내용은 <기초 질문>, <아시아공동체와 세계시민 교육에 대한 의식변화에 관한 질문>, <강의 만족도/이해도/문제점>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4.1. 설문조사 대상자 및 조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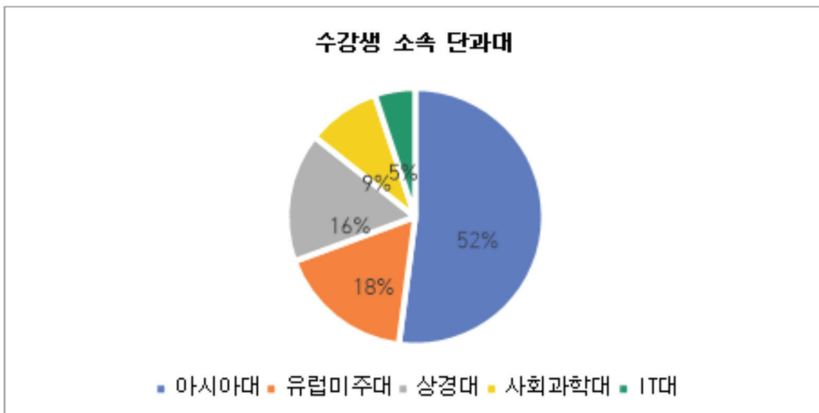
조사대상은 아시아공동체론을 수강한 부산외국어대학교 재학생들이며 조사 기간은 2021년 2학기이다. 설문조사는 강의를 시작하기 전과 15주차의 모든 강의를 끝난 후 수강생들에게 수강 전후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강의를 진행된 2주차부터 15주차까지 강의의 이해도와 만족도, 느낀점을 매주 앙케이트 형식의 과제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아시아공동체론은 3시간 연속 강의이므로 중간에 휴식시간 15분을 가졌는데 그 사이에 수강생들이 강의에 관한 질문 또는 느낀점을 구글

품으로 제출하게 함으로써 강연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어떠한 점에 더 흥미를 느끼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었다. 휴식시간이 끝난 후에는 구글폼으로 제시한 질문지를 토대로 진행자인 과목 담당교수와 강연자는 강의를 되돌아보면서 여러 수강생들의 의견을 듣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4.2. 설문조사 대상자 기초 질문 및 분석

본 강좌 수강생 246명 중 아시아대학 소속 학생들이 127명, 약 51%를 차지했으며 유럽미주대학 약 17%, 상경대학 약 16%, 사회과학대학 약 9%, IT대학 약 5% 등 아시아대학에 속한 학생이 아니더라도 아시아공동체론이라는 과목에 다양한 전공분야의 많은 수강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수강신청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수강생 소속 단과대

학년 분포도는 20학번이 62명으로 가장 많았고 13, 11학번이 각 1명으로 가장 적었으므로 현재 2, 3학년 수강생들이 본 강좌에서 가장 많은 비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수강 이유도 조사항목에 포함했는데 “학점을 얻기 위하여”, “아시아 공동체에 관심이 있어서”, “친구나 교수의 추천 또는 소개” “다양한 강사진” 등 여러 이유가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아시아공동체에 관심이 있어서 수강 신청을 했다는 수강생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4.3. 아시아공동체와 세계시민 교육에 관한 의식변화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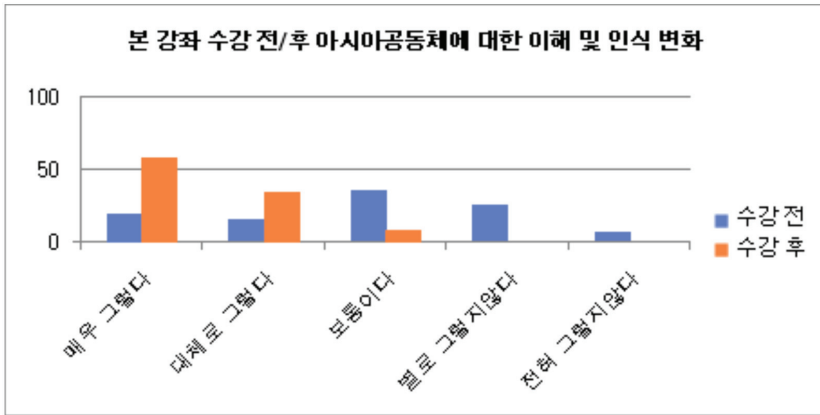
다음은 아시아공동체와 세계시민 교육에 대한 의식변화 및 분석이다. 아시아공동체, 그리고 세계시민 교육을 주제로 한 본 강좌를 수강하기 전과 수강한 후 수강생들에게는 어떤 의식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4.3.1. 아시아공동체에 대한 의식변화 분석

수강생의 의식변화에 관한 질문 중 먼저 아시아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강좌 전후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관하여 조사해보았다.

“본 강좌 수강 전 아시아공동체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이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유효 응답자 216명 중 매우 그렇다가 40명(약 19%), 대체로 그렇다가 33명(약 15%), 보통이다가 76명(약 35%)과 같이 대부분의 수강생이 아시아공동체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이 어느 정도 있지만 한편으로 별로 그렇지않다가 54명(25%), 전혀 그렇지않다가 14명(약 6%)으로 잘 모르고 관심이 없는 수강생도 적지 않았다.

이에 반해 15주차의 강좌가 모두 끝난 후 시행한 강의 후 설문조사의 질문 중 “본 강좌 수강 후 아시아공동체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이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가 125명(약 58%), 대체로 그렇다가 73명(약 34%), 보통이다가 17명(약 8%), ‘별로 그렇지않다’와 ‘전혀 그렇지않다’에 응답한 수강생 수는 총 1명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본 강좌 수강 전/후 아시아공동체에 대한 이해 및 인식 변화

앞서 보여주듯이 본 강좌 수강 전에 아시아공동체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보통 미만으로 답하였던 수강생은 총 90명이었으나 본 강좌 수강 후에는 1명에 불과했으며 이것은 다수의 수강생들이 아시아공동체론 강좌를 수강함으로써 아시아공동체에 대해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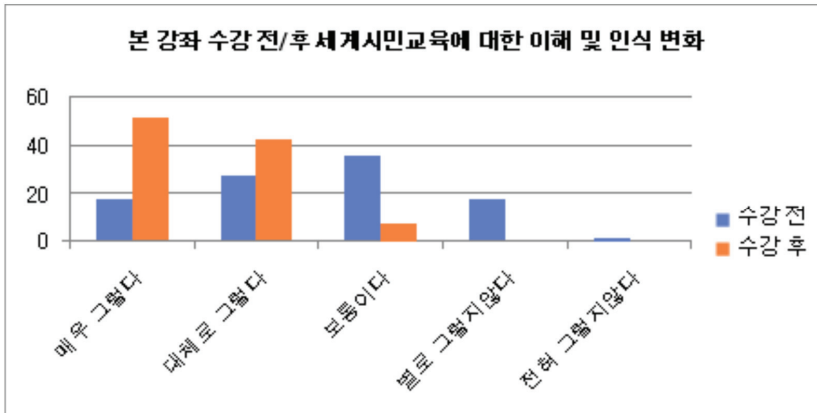
4.3.2.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의식변화 분석

다음 문항은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의식이 강좌 전/후로 어떻게 변화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본 강좌 수강 전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이 있었습니까?”에 대한 답변으로 매우 그렇다가 36명(약 17%), 대체로 그렇다가 58명(약 27%), 보통이다가 76명(약 35%), 별로 그렇지않다가 38명(약 17%), 전혀 그렇지않다가 3명(약 1%)으로 아시아공동체론 강좌를 수강하기 전에는 세계시민교육에 대해 알고있는 수강생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강좌가 끝난 후 “본 강좌 수강 후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이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매우 그렇다가 110명(약 51%), 대체로 그렇다가 91명(약 42%), 보통이다가 15명(약

7%),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는 0명으로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본 강좌를 통하여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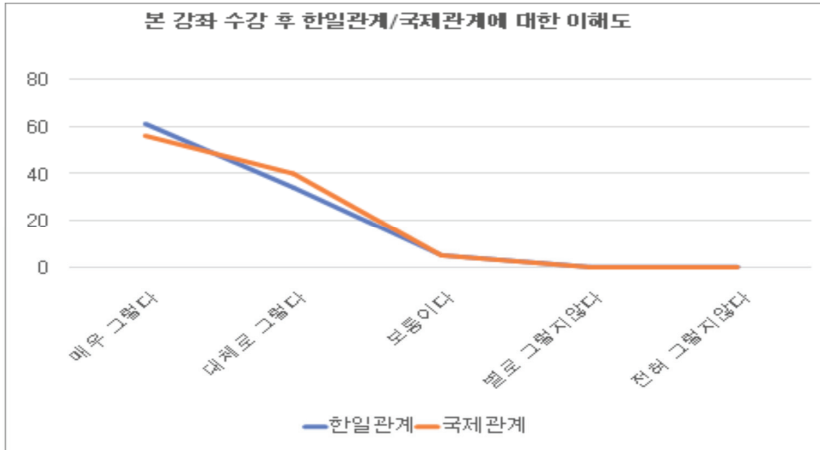


〈그림 3〉 본 강좌 수강 전/후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이해 및 인식 변화

4.3.3. 강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 및 만족도 분석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1학기 강의 내용을 모두 매우 잘 이해하거나 대체로 이해한다고 하였고 강의의 질에 있어 매우 만족하거나 대체로 만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그림5 참조).

추가로 아시아공동체와 세계시민 교육이라는 주제와 함께 최근 들어 더욱 검색되어 있는 한일관계와 국제관계에 대한 이해도 또한 함께 조사하였다. 그 자세한 내용은 <그림 4>와 같다.



〈그림 4〉 본 강좌 수강 후 한일관계/국제관계에 대한 이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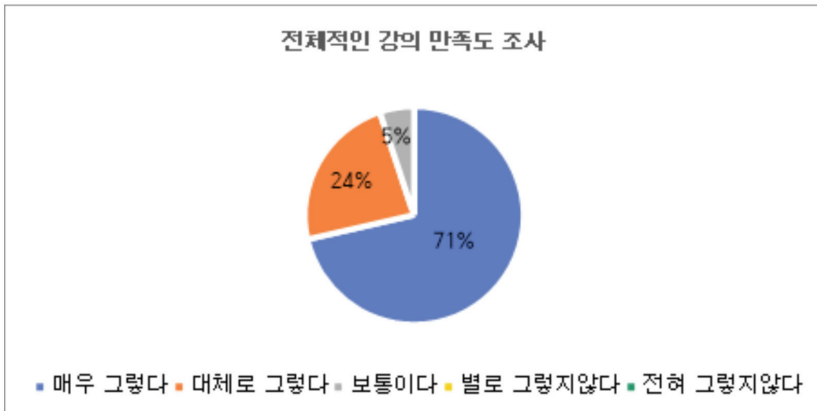
먼저 국제관계 이해도 조사결과이다. 국제관계에 관하여 매우 이해했다라는 응답에 120명(약 56%), 대체로 이해했다에 86명(약 40%), 보통이다에 10명(약 5%)으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수강생은 단 한 명도 없었으며 이를 통해 아시아공동체론을 수강함으로써 수강생들의 국제관계 이해도가 수강 전에 비해 높아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한일관계에 대한 인식 변화를 조사해 본 결과 “본 강좌 수강 후 한일관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습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가 132명(약 61%), 대체로 그렇다가 73명(약 34%), 보통이다가 11명(약 5%),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가 0명이었다.

역사적 측면에서, 또 정치적으로도 일본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경향이 많아 한일관계에도 초점을 두고 그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 심도 있는 강의를 진행하였고 본 강좌를 통해 60% 이상의 수강생들에게 한일관계에 있어 긍정적인 의식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강의가 끝난 후 추가로 진행한 전체적인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도 유효 응답자 216명 중 153명(약 70%)의 수강생이 매우 그렇다에, 51명(약 23%)의 수강생이 대체로 그렇다에, 11명(5%)의 수강

생이 보통이다에 응답하였으며 ‘별로 그렇지않다’와 ‘전혀 그렇지않다’에는 총 1명이 응답하였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보아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에 답변한 수강생이 유효 응답자 216명 중 200명 이상으로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본 강좌에 만족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그림 5>와 같다.



〈그림 5〉 전체적인 강의 만족도 조사

만족한 점에 있어서는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다양한 강사진’,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적어낼 수 있는 구글폼을 활용한 강의 형태’로 강의가 진행 되었다는 점이 가장 만족스러웠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반대로 불만족스러운 부분에 있어서는 ‘3시간의 긴 강의시간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 ‘비대면 강의로 인한 아쉬움’ 등 일부분의 강의운영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대면으로 본 강좌를 진행하였으나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하여 약 250명의 수강생이 한 장소에서 함께 강의를 듣는 것은 힘들 것으로 판단되어 ZOOM을 이용한 비대면 강의로 전환하였는데 ZOOM을 다루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 미숙한 점도 있었지만 비대면이었기에 다수의 수강생들이 만족했던 구글폼을 활용한 강의진행, 동시통역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었다.

더불어 앞서 2013년에 진행했던 강의사례 연구¹⁰⁾에서는 ‘아시아공동체론’ 강의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유효 응답자 167명 중 매우 그렇다에 답한 수강생이 13명(약 8%), 조금 그렇다에 54명(약 32%), 보통이다에 75명(약 45%)으로 ‘매우 그렇다’와 ‘조금 그렇다’의 긍정적인 답변을 한 수강생은 40%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1년에 진행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94%에 달하는 수강생이 대부분의 강의에 만족하였다는 결과가 나와 8년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강의 방식을 적절히 보완해나감으로써 강의의 질이 향상되어 예전에 비해 수강생들에게 만족을 주었다는 것으로 추측한다.

4.4. 기타 최종 감상에 대한 분석

강좌가 모두 끝난 후 강의에 대한 최종 감상을 수강생들에게 기술식 형태로 제출하게 하였다.

다양한 감상평이 나왔으나 그 중 PASS/NON PASS 형식의 부담없는 수업, 평소에 만나볼 수 없는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다양한 강사진, 온타임으로 진행되는 구글폼을 이용한 강연자와 수강생의 질의응답 코너 등 전체적인 수업방식에 관한 긍정적인 평가가 43%로 가장 많았다. 그중에서 인상적인 수강생들의 의견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교수님 말씀대로 많은 수업들은 시험을 위해 무언가를 달달 외우기만 하는 공부를 하였다면 이 수업은 시험의 부담을 조금 내려놓고 어떠한 주제나 다른 학우분들의 의견을 듣고 나의 의견과 비교해보며 탐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앙케이트 자리를 빌려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힘써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출결이나 여러가지 공지사항 등을 학생들에게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너무 친절하신 조교님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세 분 덕분에 아시아공동체론을 수강하며 배워가는 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3시

10) 정기영 외 4명(2015), ‘아시아공동체론’ 강의사례 연구 -부산외대 ‘아시아공동체론’ 수강생의 의식변화를 중심으로-, 일본어교육학회 31집, p.216 참조

간 연속으로 다양한 강연, 통역, 질의응답까지 도와주신 교수님들과 조교님 모두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에 아시아에 사는 한 시민으로써도 잘 모르고 있었던 지식들과 인생을 살아가면서 쉽게 얻을 수 없는 조언을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문장들은 아시아공동체론 수강생 A와 B의 감상평을 인용한 것이다. 수강생들의 감상평을 보아 알 수 있듯이 본 강좌는 머리로 이해하는 지적 지식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삶의 교훈이 되고 자신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강좌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아시아공동체, 세계시민, 한일관계에 대하여 이전에는 몰랐던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 또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평가가 31%로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한 수강생의 기술식 의견은 다음과 같다.

“초반에는 아시아공동체의 필요성과 시티즌십에 대해 잘 알지 못했는데 한 주 한 주 시간이 흐를수록 두 개의 개념이 머릿속에 정리되고 강의를 들을 때 이해하기도 편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어 강의를 진행할 때 동시통역을 해주셔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교수님들과 조교님께서 친절하게 안내해주신 덕분에 한 학기 수업을 편하고 재밌게 들을 수 있어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처럼 본 강좌를 통해 아시아공동체의 필요성과 세계시민교육에 대해 전문 분야의 강사들을 초빙하여 보다 쉽게 이해하게하고 외국인 강사를 초빙하였을 때는 ZOOM의 동시통역 기능을 사용하여 부담없이 강연을 들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강생들에게 있어 강연에 대한 만족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었다.

나머지 26%는 위의 만족도 조사에서 언급하였던 본 수업의 개선점, 부족했던 부분 등을 지적하였고 금후 있을 강의에는 수강생들에게 지금까지보다 더욱 만족도 높은 강의를 제공하기 위해 본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 자세한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기타 최종 감상에 대한 분석

만족	수업형태 · 운영방식	• PASS/NON PASS • 강연자와 온타임으로 진행되는 토론 수업 • 질문에 대한 신속한 답변
	수업의 내용	•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 강의의 퀄리티가 높음 • 아시아공동체/시티즌십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고 흥미를 가지게 됨
	그 외	• 타국의 강연자가 강연을 할 때 동시통역 진행 • 강의 외에도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필요한 인생 선배들의 가치있고 유익한 이야기
불만족	수업형태 · 운영방식	• 3시간 연속 수업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 •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ZOOM 수업
	수업의 내용	• 아시아중에서도 특히나 일본에만 포커스가 맞추어져있음
	그 외	• 지나치게 많은 수강인원

5. 결론 및 금후의 과제

본 논문은 ‘아시아공동체론’ 강좌를 진행하며 시행한 설문조사 유효 응답자 216명을 바탕으로 ‘수강자의 현황’, ‘수강자의 의식변화’, ‘강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와 만족도’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수강자 현황 분석결과 아시아대학 학생이 응답자의 약 51%를 차지했으며 유효 응답자 216명 중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62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중 아시아공동체에 관심이 있어서 본 강좌를 수강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나 본 강좌 수강 전 사전 설문조사에서는 아시아공동체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보통이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가 약 70%로 아시아공동체에 관심은 있으나 대부분의 수강생이 아시아공동체에 대해 잘 모르며 이해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강좌 수강 후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아시아공동체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을 갖게 되었느냐는 질문에 약 82%의 수강생이 ‘매우 그렇다’ 또는 ‘대체로 그렇다’에 응답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본 강좌를 통해 대다수의 수강생에게 아시아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여겨진다. 아시아공동체에 대한 이해 및 인식과 더불어 이번 강좌의 테마였던 세계시민에 대한 이해 및 인식 역시 강좌 전과 비교해 93%의 수강생이 강좌 후 세계시민에 대해 이해하였다는 결과가 나오므로써 이번 강좌가 미래 세대를 짊어지고 갈 글로벌 인재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강의내용에 대한 이해도와 만족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전체적인 강의 내용에 만족하냐는 질문에 약 93%의 학생이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의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반면 8년전(2013년) 시행했던 강의사례 연구에서는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가 40%로 나타났으며 2013년과 비교하여 53% 비율의 수강생이 본 강좌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유는 강의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 2013년의 ‘아시아공동체론’ 강의운영 방식은 약 200명이 한 공간에 모여 강의를 듣는 대면 강의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지정석’에 관한 불만이 가장 많았다. 반면 2021년에 진행된 본 강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진행하였는데 지금까지 강의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9년차 ‘아시아공동체론’ 강좌의 강의방식에 대해 어떻게 해야 수강생들로 하여금 만족스러운 강좌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한 결과 비대면이기에 가능하였던 구글폼을 활용한 질의응답 코너를 준비하였고, 여러 분야별 전문가들을 모셔 강연을 듣고 난 후, 수강생들과 장시간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지적으로 자극함으로써 과거의 강좌와 비교해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올라간 것이라고 추측되어진다. 그 외의 이유로는 이클래스(e-class)를 통한 강의 자료 사전 공유, 강의후 강좌 동영상 공유, 학습자 눈높이 맞는 강의 내용 및 강의 구성, 각 분야의 전문 강사진, 종합적인 강좌 운영 노하우의 상향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만족하는 수강생이 있는 반면 불만족스럽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 중 3시간동안 진행되는 연속강의이었으므로 강의가 끝날 때까지 집중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나 본교의 교원들로

이루어지는 강의가 아닌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진행되는 특별강연식 강좌로 주 1일로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3시간의 강연시간동안 중간에 충분한 휴식시간을 확보하거나 강의가 길어지지 않도록 조정하는 등 수강생들의 집중력을 재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강의 중 수강생들의 적극적인 참가를 위해 ZOOM의 채팅 기능 이용 또는 ICT도구 개발을 통하여 일방적인 강의가 아닌 수강생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강좌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온라인/오프라인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만 온라인으로 진행한 이번 학기 아시아공동체론은 수강생들의 관리에 부족한 부분은 있었으나 오프라인으로 진행했을 때 수강생들이 불만족스러워하였던 부분을 충족하는 계기도 되었으며 강의를 바로 녹화하여 동영상상을 이클래스에 업로드하여 강의를 되돌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학습자들의 의욕만 있다면 온라인 강의가 오프라인 강의보다 상당히 효율적인 부분이 많았으며 강의의 효율성, 학교의 경영적인 측면, 강의실 확보 등 다각도로 볼 때 우리 대학의 교육 패러다임이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이번 경험을 발판 삼아 대단위 교양강좌의 경우는 온라인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하지만 본 강좌의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3시간 연속강의로 인한 집중저하의 문제, 보이지 않는 성취도가 낮은 수강생들에 대한 관리 등과 같이 몇몇의 단점도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 온라인 강좌가 아닌 강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수동적으로 듣는 강의는 온라인화 하여 수강생의 자율학습에 맡겨두고,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 질의응답은 ZOOM과 같은 도구를 이용해 온라인 온타임 수업으로 하여 강연자와 실질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강의, 즉 플립러닝화 시킨다면 수강생들의 강의 만족도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이상과 같이 본 사례조사를 통해서 대단위 교양강좌는 온라인 강의, 오프라인 강의 어느 한 편에 치우치는 것이 아닌, 어느 정도 강연자와 소통할 수 있으면서 자유롭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플립러닝식 교육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경험을 한 것이 이번 강좌 분석을 통해 얻은 부파적인 수확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 조사를 통해

서 외국어만을 구사하는 글로벌인재가 아닌 민족주의를 넘어선 세계시민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외국어교육 커리큘럼 속에 아시아공동체론과 세계시민 교육 등을 통해서 수강생들의 글로벌 마인드 및 세계시민 의식을 변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들과 학습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새로운 커리큘럼과 함께 앞으로의 외국어 및 다문화 교육이 언어, 문화 중심 교육에서 타학문분야와의 융합교육으로, 융합교육에서 세계시민교육으로 발전해나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병성 편집(2015). 아시아의 꿈과 신아시아인 육성을 위한 교육, 문무사.
- 노찬옥(2001).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시안적 연구 -세계 시민의 위상과 세계 시민교육의 방향 탐색-, 한국사회과교육학회.
- 아유카와 료(2014). 원아시아의 헤럴드, 法文社.
- 정기영 외 4명(2015). '아시아공동체론' 강의사례 연구 -부산외대 '아시아공동체론' 수강생의 의식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일어교육학회 31집. pp.207~224 참조.
- 정기영 역음(2015). 아시아공동체와 다언어 다문화 커뮤니케이션, 솔과학.
- 정기영 역음(2015). 아시아공동체와 지역사정, 솔과학.
- 정기영(2021).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본어교육과 국제교류의 새로운 가능성, 현장대학교실무연구논총 10호.
- 鮎川良(2013). ワンアジアの使者たち-アジア共同体をめざして-, 芦書房.
- 小林亮(2018). ユネスコの地球市民教育が追求する能力 -グローバル時代における価値教育の新たな展望-, 玉川大学教育学部紀要 18g号, pp.19~32.
- 유네스코 홈페이지 : <https://en.unesco.org/themes/gced>
- 일반사단법인 유라시아재단 from Asia 홈페이지 : <http://www.eura>

필자 소개

성 명 정기영
소 속 부산외국어대학교 일본어융합학부교수, 아시아공동체연구소장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485번길 65 [우편번호] 46234
전자우편 gyjung@bufs.ac.kr

성 명 히라나카 유카리
소 속 부산외국어대학교 일본어융합학부 부교수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485번길 65 [우편번호] 46234
전자우편 yukari51988@gmail.com

성 명 조희주
소 속 부산외국어대학교 일본어융합학부 학생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485번길 65 [우편번호] 46234
전자우편 whgmlwn917@gmail.com

Abstract

A Study on the Change of University Students' Consciousness through Asian Community Theory an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Jung, gi-young · Hiranaka Yukari · Jo, hee-ju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 this study, we invited speakers from each field to conduct omnibus-style lectures every week under the keywords “Asia Community” and “World Citizen Education” in the university’s liberal arts lecture “Asia Community Theory” to build a future society like an EU community, and to explore the world.

[Key words] Asian Community, Citizenship Education, multicultural education, foreign language education

투고일 2022. 10. 31 / 심사일 2022. 11. 2 / 심사완료일 2022. 11. 16

〈부록 1〉 설문조사 문항

이름:	학번:		학과:		
질문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 렇지않다	전혀 그 렇지않다
Q1. 본 강좌를 수강하기 전에 아시아공동체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이 있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Q2. 본 강좌를 수강 한 후 아시아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Q3. 본 강좌를 수강 하기 전에는 아시아공동체의 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Q4. 본 강좌를 수강 한 후 아시아공동체의 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①	②	③	④	⑤
Q5. 미래에 아시아 국가들이 EU와 같은 공동체를 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Q6. 본 강좌를 수강하기 전에 시티즌십(시민성, 시민의식)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이 있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Q7. 본 강좌를 수강한 후 시티즌십(시민성, 시민의식)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Q8. 본 강좌를 수강한 후 국제관계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Q9. 본 강좌를 수강한 후 한일관계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Q10. 본 강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만족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Q11. 어떤 점이 만족스럽습니까?					
Q12. 어떤 점이 불만족스럽습니까?					
Q13. 수업에 대한 전체적인 감상이나 의견, 개선점 등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